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54)	봉헌 (210)	성체 (160)	파견 (6)
---------	---------	----------	----------	--------

제1독서 | 이사 66,10-14ㄷ

화답송 |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1)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룩한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갈라 6,14-18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10,1-12,17-20<또는 10,1-9>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3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7/7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7/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7/2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0	\$	\$3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1	이 요한/ 이 마틸다	7/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7/13	김 마론/ 김 헬레나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

-김미희 마리스텔라 |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모성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는 축복이며 고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 중 하나를 저희의 보살핌 안에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보여 주신 그 큰 신뢰를 저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됨의 중요함을 항상 기쁘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어머니들의 기도 책자 8번째 기도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 첫 미사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강론에서 “모성은 인간애의 토대이며 분열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치료제”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대사회에 ‘모성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은 영국의 두 할머니, 베로니카와 산드라는 1995년 세 어머니와 함께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영성은 ‘주님께 온전히 내맡김입니다. 베로니카는 저서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으뜸사랑)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김으로써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 넘치는 주님의 이끄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어머니들이 90여 명, 18개 그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모여 기도 책자(서울대교구 인준)에 따라 기도합니다. 9개 기도문을 바친 후 십자가 아래 바구니에 저희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사제, 수도자, 대자·대녀)의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8월 1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7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는 모임은 7월 21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이번 모임은 ‘순회송 베네딕토 신부님의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 2부’로 묵상하시고 준비하시어 나눔을 갖겠습니다.

영적 예물 봉헌 카드: 전요아킴 신부님 영명축일(7월 26일)

지난 주 박 벨라데타 자매님이 나누어주신 영적예물 봉헌카드에 기도하신 내용을 기재하시고 7월 20일 까지 성당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적힌 동그란 종이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바구니) 안에 맡기며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저에게 준 축복은 신앙인으로서 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① 그래(Yes), ② 아직(Not yet), ③ 더 좋은 계획(Something better in mind).

‘어머니들의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늘 1번 즉답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2번의 답을 받아들이며 3번의 답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100% 맡기고 기도할 때 저는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큰 치유와 평화, 희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닌 또 하나의 축복은 모성의 확장입니다. 현재 세계 120여 개국, 수만 명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은 우리 자녀들은 물론 기도해줄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묵상

그러나 이것 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루카 10-11)